

문헌정보학 실무자와 실무중심의 연구활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

김 상 준

시작하는 글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이하 LIS라 함)이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정보학 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타당성이 있는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학문분야(이치주, 2002)로 정의된다면 실무에 관한 연구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이 실무자에 의한 연구활동이 왕성하고 실무중심의 연구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개의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R. R. Powell 등이 쓴 2002년도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저널 제 24권 1호(봄호)에 실린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actitioners and research"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반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도서관 실무자들의 연구활동에 대해 한국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재구성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본 내용의 범위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2) 두 번째는 한국 도서관 실무자들의 연구활동에 대해 본 저자가 직접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1996~2002년도 본 논문의 저자 중 소속기관을 이용하여 실무자에 의한 논문의 비율을 조사한 것과 '도서관', '국

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 등 현장중심의 학술지에 실린 문헌의 인용분석 결과(이치주, 2002)에 나타난 국내외 저널의 순위를 Powell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볼 목적으로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실무분야의 하나인 의학도서관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무자에 의한 왕성한 연구활동과 실무중심의 연구에 대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 판단되어 회원 모두가 같이 고민할만한 논제로서 이를 제시함에 본 연구의 의미를 둔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외국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국내의 연구결과나 현황을 상호 비교해 우리의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한 부분은 계속 살려서 실무자에 의한 진정한 실무지향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때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초석은 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문헌정보학은 한 층 더 발전되리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중요하다고 본다.

문헌정보학 실무자와 연구활동 관련 선행연구

LIS 실무자에 의한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실무자를 연구 문헌의 비판적 소화자로 만들기 위해서나, 다른 분야 연구자에게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훌륭한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LIS 실무자에 의한 연구는

연구문헌을 읽고 수행하는 사서(특히 종신제직의 길에 있는 대학사서)의 경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비판적이면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서관 직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며, 그 지역사회(공동체) 내 사서의 지위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LIS 실무자에 의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Swisher (1986)는 연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각각에게 책임이 있는 더 좋은 실무적 결정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사서가 연구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도서관의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연구문헌을 더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무적 연구의 책임은 사서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Hemon과 Schwartz (1993)도 이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은 학계 내의 학위프로그램에 의해 표현되는 직업 또는 학문분야로서 LIS의 지속적인 발달에 있어 핵심이며, 그런 직업 또는 학문분야는 그 이론과 연구를 통해서이거나 이를 추진하는 사람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을 이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IS 실무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적용해야 하는 이유들이 빈번하게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 의한 연구는 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무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구문헌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Blick (1984)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1. 활동적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2. 실무자는 전문적 문헌에 의해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
3. 연구문헌을 읽을 때 많은 양의 전문용어를 실무자를 좌절하게 한다.
4. 실무자는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적합하다.
6. 연구는 실무적 적용과 임무수행에 부족하

다는 인식이 있다.

7. 연구기금이 부족하다.
8. 변화나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이 있다.

실무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이런 이유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Basker (1985)는 사서는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식별하는 방법상의 도움, 경험 있는 연구자에 의한 조언을 받는 것, 재정적 지원, 연구를 수행할 시간, 연구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시기적절한 유형의 보상, 연구 프로젝트를 개인적 발달과 연결시키는 도움, 그리고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장려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well (1997)은 LIS 학위 프로그램, 전문협회, 그리고 도서관은 사서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문헌을)비판적으로 소화하게 하는 대비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적당한 인센티브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직원개발활동, 연구를 위한 자유시간, 안식년 또는 특별휴가 및 성과급 증대,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사무적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Powell 등이 쓴 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 실무자와 연구활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Cullen (1998)은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LIS에서는 서비스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이용 부족은 아마도 다른 전문직들과는 다르게 LIS 연구가 실무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유인책이 부족하고, 인간의 생사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고, 도서관이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주주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최근까지도 도서관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것 등의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Waldhart (1980)는 도서관 연구가 전문직에서 갖는 제한된 영향력에 대해 동의하면서 대부분 연구들이 갖는 낮은 질, 연구들이 너무 특정

하거나 비밀스럽고, 혹은 도서관 커뮤니티가 직면한 실제 현실문제에 대해 적절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고안되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에 관해 실무자들이 종종 연구의 목적, 제한점 및 연구의 효과적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논하였다.

- Watson-Boone (2000)은 1985년부터 1995년 사이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에서 56개의 연구논문들 중에서 24개가 실무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논문들은 지식기반의 직업들과 성장해온 그룹인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들을 묘사했고, 11개의 이슈들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며, 실무기반 문제의 해결과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7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Feehan 등(1987)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결과 비록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연구가 1976년부터 1984년까지의 연구보다 더 활발하였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이 직업의 현상에 적용하는 쪽으로 연동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 McClure와 Bishop (1989)은 연구동향에 관심을 갖는 LIS 선도연구자의 조사에서 실무전문가들의 대다수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 실무전문가들만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많은 졸업생은 연구의 소화와 이해에 도움이 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 Molholt (1998)는 또한 연구성과가 작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구기반구조라 불리는 “연구지향 태도(research-mindedness)”의 부족에 관해서 비평하고, LIS 연구의 향상에 필요한 연구센터, 도서관학 학교, 학술도서관과 확장된 서비스에 관해 언급했다.

- Balslev (1989), DeVinity & Tegler (1983)와 Houser & Schrader (1978) 등 세 연구들은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연구수행에서 흥미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Swisher (1986)는 많은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기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연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Ali (1986)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연구결과를 보급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유명한 저널들을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저널 중에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저널들은 *American Libraries*, *Illinois Libraries*, *Library Journal*, *Wilson Library Bulletin*이 있다. 대부분의 LIS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은 이들 저널들이 진정한 “연구저널”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 ALA Task Force on Core Competencies (2001)에 의하면 “연구”가 “핵심 경쟁력”의 7번째 요소라고 한다. 또한 1999년도 ALA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직을 위한 핵심적인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의 문헌정보학 실무자의 연구활동 관련 선행연구로 이치주(2002)가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가 아닌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 등 현장중심의 학술지에 실린 문헌을 대상으로 인용분석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3개 현장중심의 학술지에 실린 문헌에서 인용한 국내외잡지의 순위를 다시 작성하여 Powell 등이 쓴 논문에 나타난 실무자의 연구활동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Powell 등이 쓴 논문의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결과

1) Powell 등이 쓴 논문의 연구방법

실무자에 의한 연구에서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궁극적으로 전문적 연구의 영향을 최대화하고, LIS 교육자와 연구자 및 관리자가 실무자의 연구활동과 전망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위해 Powell 등의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연구방법이 설계되었다.

1. LIS 실무자들이 연구문헌을 읽는 양은 얼마나 되나?
2. LIS 실무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가?
3. LIS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수행하는가?
4. LIS 실무자들은 LIS 연구에 흥미를 가지는가?
5. LIS 실무자들의 연구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6. LIS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기술에 대해 평가하는가?
7. LIS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가?

다양한 형태의 LIS 실무자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 질문지는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SIST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L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LA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의 4개 주요 전문협회의 선택된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보내졌고, 질문지는 10명의 대학사서들 그룹에서 예비검사를 받고 계속 수정되면서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걸릴 평균시간이 8분이라는 것이 추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3개 협회 회원인명록과 MLA의 전자파일 회원목록을 이용했으며, 각 인명록은 협회 사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분된 회원으로 취급하고, 표본 크기의 공식은 각 개체집단에 대한 최선의 표본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각 협회에 대한 개체집단의 크기(N)와 표본의 크기(n)는 다음과 같다.

- ALA: N=52,502; n=381
- ASIST: N=4,000; n=351
- MLA: N=2,738; n=338
- SLA: N=13,799; n=374

각 표본은 체계적인 표본추출 기술과 적절한 표본간격으로 선택되었으며, 하나 이상의 협회

에 속한 개인은 하나 이상의 표본에 선택되지 않았고, 질문지 배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LIS 실무자(퇴직자, 학생, 교육자, 단체 회원은 제외)로만 제한되었다.

질문지는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규칙적으로 읽는 연구저널을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저널 제목은 열거된 주요 연구저널을 가진 선행연구(Blake & Tjoumas, 1992; Buttlar, 1991; Davis & Kohl, 1985)로부터 나왔고, 그 목록은 필자들에게 의해 확인 후 수정되었고, 응답자들은 질문지에 없는 제목을 스스로 추가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의 연구와 관련된 독서를 조사하는 것 외에 질문지는 응답자들이 연구 수행과 연구기반 출판물의 저술에 관련된 범위,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단체에 참여하는 범위, 연구이론에 있어서 그들의 교육적 준비의 범위, 정보지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가 더욱 관련성이 있거나 유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Powell 등이 쓴 논문의 결과 요약

총 1,444개 질문지는 2000년 6월 13일에 우편으로 보내졌고, 2번째 우편물은 2000년 7월 18일에 무응답자에게 보냈다. 보내진 질문지 중 660개는 회송되었고, 45개는 쓸 수 없었고, 615개(42.6% of 1,444)의 사용할 수 있는 질문지만 SPSS 버전6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MLA 회원들은 다른 협회의 회원들 보다 더 많이 질문지에 응답했다(MLA, n=191 (31.1%); ALA, n=155 (25.2%); SLA, n=138 (22.4%); ASIST, n=131 (21.3%)).

(1) 연구문헌 읽기와 연구

- 1번 질문: 연구문헌 읽기가 직업상 기대의 일부인가?

4개 협회의 회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ASIST (71.5%)와 MLA (67.4%) 회원이 ALA (55.2%) 또는 SLA (54%) 회원들의 기대치 보다 높았다.

- 2번 질문: 직업에 관련된 연구문헌을 읽을

시간을 갖는가?

MLA 회원(60.8%)이 ASIST (51.2%), SLA (49.6%) 및 ALA (38.2%)의 회원들 보다 직업에 관련된 연구문헌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3번 질문: 나열된 25개 연구지향 저널 중 일 부라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있는가?

ASIST (M=3.05) 회원들은 MLA (M=2.75), SLA (M=2.39) 또는 ALA (M=2.08)의 회원들보다 약간 많은 저널을 읽었고, 대부분의 응답자 (305명, 49.4% of 618)들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1~2개의 저널을 읽는다고 지적했고, 3~4개의 저널을 읽는 응답자가 152명(24.6%)이며, 5종 이상 읽는 응답자도 95명(15.4%) 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4개 협회로부터 응답자들이 전부 *College & Research Libraries*를 표시했다는 점이다. ALA, SLA 그리고 ASIST의 회원 모두는 *Information Outlook*과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를 인용했고, MLA, SLA 그리고 ASIST의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협회저널(ALA의

*American Libraries*는 연구저널로 고려되지 않아 리스트에 누락됨)을 읽었다. 응답자들이 “other” 범주를 지적해 25개 리스트 이외에 별도로 기록한 134개 저널은 4개 협회의 회원들 사이에 차이를 나타냈고, 이 저널의 주제 분류는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법률, 과학과 의학; 정보기술; 경쟁적 지식; 학교도서관 미디어 등이며, 3명 또는 그 이상의 응답자들이 지적했던 저널을 자주 인용된 순서로 응답자의 수와 함께 나열하면 *Library Journal* (14), *American Libraries* (13), *E-content/Online* (13), *Computers in Libraries* (11), *Searcher* (9),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7), *Academic Medicine* (5),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5), *Communications of the ACM* (4), *Information Today* (4), *Knowledge Quest* (4), *Law Library Journal* (4) 등이다. 구체적으로 MLA회원은 0종이 4.7%, 1종이 29.8%, 2종이 20.4%, 3종이 15.2%, 4종이 12.6%, 5종 이상이 17.3%로 3종 이상 읽는 회원 수가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 4번 질문: 3번 질문의 저널 중에서 연구기반

표 1. 도서관 단체별 선호도 상위 5개 연구저널

순위	ALA	SLA	MLA	ASIST
1	College &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Outlook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	Public Librari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Information Outlook
3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Information Outlook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5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표 2. 도서관 단체별 저널 읽기/연구 수행/결과 발표/업무 활용 정도

관련된 질문번호 및 내용	구분	ALA	SLA	MLA	ASIST	합계
3번 질문. Research journals read by association (No. of research journals read)	없음	32	13	9	10	64 (10.4%)
	1종	40	33	57	27	157 (25.5%)
	2종	35	45	39	28	147 (23.9%)
	3종	19	20	29	23	91 (14.8%)
	4종	13	11	24	13	61 (9.9%)
	5종 이상	16	16	33	30	95 (15.4%)
	소계	155	138	191	131	615 (100%)
6번 질문. Research related to specific position (job-related research)	없음	61	45	65	29	200 (32.9%)
	조금	47	36	50	34	167 (27.2%)
	가끔	36	43	55	40	174 (28.7%)
	자주	11	13	20	22	66 (10.9%)
	소계	155	137	190	125	607 (100%)
7번 질문. Conduct research related to LIS (Conducts LIS-related research)	없음	66	66	78	39	249 (40.9%)
	조금	52	34	47	33	166 (27.3%)
	가끔	30	30	52	34	146 (24.0%)
	자주	7	7	14	20	48 (7.9%)
	소계	155	137	191	126	609 (100%)
8번 질문. Published results of research (Published results)	있음	27	22	54	47	150 (26.3%)
	없음	74	76	86	56	292 (51.5%)
	구분 불가	40	30	42	17	129 (22.6%)
	소계	141	128	182	120	571 (100%)
10-12번 질문. Support for conducting research	시간(N=593)	41	48	83	54	225 (37.9%)
	내부지원(N=600)	27	28	52	46	153 (25.5%)
	외부지원(N=604)	17	18	27	28	90 (14.9%)
13번 질문. Apply published research results to practice	없음	27	22	17	10	76 (13.0%)
	조금	37	29	46	23	135 (23.1%)
	가끔	69	64	91	66	290 (49.6%)
	자주	13	14	31	26	84 (14.4%)
	소계	146	129	185	125	585 (100%)

논문을 정기적으로 읽는가?

176명의 응답자들은 “no”라고 대답한 반면 51명은 “no applicable”로 응답했고, 367명의 긍정적인 응답 중에 MLA (67.7%)와 ASIST (63.5%) 회원들이 SLA (60.4%)와 ALA (54.1%)의 회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연구기반 논문을 읽었다.

- 5번 질문: 4번 질문에 “no”로 응답한 경우 연구기반 논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협회 사이의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아 239명 중 62명은 연구기반 논문이 직업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61명은 에세이(essay)나 의견글(opinion pieces)을 더 선호했고, 다른 37명은 연구방법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79명은 “other” 범주에 표시했다. 그들이 연구논문을 읽지 않는 4가지 이유 중 “충분한 시간이 없다”와 “업무상 관련성의 결

핍”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였고, 연구논문이 직업에 관련되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적절할 때만 읽거나, 연구저널에 대한 접근의 곤란과 많은 테이블 사용 등 독자의 요구와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을 읽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연구활동

- 6번 질문: 특정한 고용상의 지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가?

협회 회원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었다.

- 7번 질문: LIS 전문성(전문직)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가?

MLA와 ASIST 회원들의 다수가 ‘가끔’ LIS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반해 많은 ASIST 회원들이 LIS 관련 연구를 ‘자주’ 수행하고 있었

표 3. 변수별 규칙적인 연구논문 읽기의 정도

관련 질문번호(17번) 및 내용	구 분	규칙적인 연구논문 읽기			합 계
		예	아니오	NA	
- Reading as part of job and regularly reads research articles	예	277	84	13	374 (63.4%)
	아니오	89	89	38	216 (36.6%)
	소 계	366	173	51	590 (100%)
- Time to read research literature and regularly reads research articles	예	206	78		248 (53.1%)
	아니오	154	97		251 (46.9%)
	소 계	360	175		535 (100%)
- LIS master's degree preparation and regularly reads research articles	예	191	86		277 (57.3%)
	아니오	136	70		206 (42.7%)
	소 계	327	156		483 (100%)
- No.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gularly reads research articles	없음	37	40		77 (14.2%)
	1	67	52		119 (21.9%)
	2	92	35		127 (23.3%)
	3	91	23		114 (21.0%)
	4 이상	81	26		107 (19.7%)
	소 계	368	176		544 (100%)

다.

- 8번 질문: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그 결과들을 발표하는가?

응답자들의 대부분(n=421, 83.7%)은 자기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발표한 응답자들의 대부분(n=150, 26.3%)은 ASIST와 MLA에 소속되어 있었고, 많은 ALA 회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9번 질문: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장 최근 출판물 2개는?

140명의 응답자들은 저널, 기술보고서, 또는 회의록의 이름을 언급했고,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은 MLA (n=21) 회원들에 의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저널이었고, 응답자들이 언급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저널은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6), *Academic Medicine* (5),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 *Library Trends* (4), *Medical Reference Service Quarterly* (4),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3),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 *Special Libraries* (3) 등이다.

(3)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

- 10번 질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시간상의 지원이 있는가?

- 11번 질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지원이 있는가?

- 12번 질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외부지원이 있는가?

10~12번 질문 중 근무시간 동안의 시간상 지원과 내부지원에 대해서 협회 회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외부지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MLA 회원들의 다수는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시간 동안 시간상의 지원이 있다고 말했고, ASIST 회원들의 다수는 그들이 외부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4) 연구결과의 실무 적용

- 13번 질문: 발표된 연구결과들이 실무에 적용된 빈도는?

표 4. 변수별 연구수행 정도

관련된 질문번호 및 내용	구분	연구 수행		합계
		예	아니오	
10번 질문. Time on the job to do research	예	214 (52.3%)	11 (6.0%)	225 (38.1%)
	아니오	195 (47.7%)	171 (94.0%)	366 (61.9%)
	소계	409 (100%)	182 (100%)	591 (100%)
11번 질문. Internal support for doing research	예	143 (34.3%)	10 (5.5%)	153 (25.6%)
	아니오	274 (65.7%)	171 (94.5%)	445 (74.4%)
	소계	417 (100%)	181 (100%)	598 (100%)
12번 질문. External support for doing research	예	81 (19.3%)	6 (3.3%)	87 (14.5%)
	아니오	338 (80.7%)	177 (96.7%)	515 (85.5%)
	소계	419 (100%)	183 (100%)	602 (100%)
15번 질문. LIS master's degree preparation	예	127 (35.0%)	50 (30.9%)	177 (33.7%)
	아니오	236 (65.0%)	112 (69.1%)	348 (66.3%)
	소계	363 (100%)	162 (100%)	525 (100%)

응답 범위는 “never”로부터 “frequently”까지로 협회 회원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ASIST 회원들의 다수가 “occasionally” 또는 “frequently”라는 응답을 한 반면에 ALA 회원들의 다수는 “never” 또는 “seldom”에 응답을 했고,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연구결과를 그들의 실무에 적용하였다.

(5) 교육

- 14번 질문: LIS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가? 학위를 받은 연도는?

응답자의 대부분이(542명, 88.9%) LIS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21명(7.3%)은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1990년대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 15번 질문: LIS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a) 연구기반 출판물의 독서와 이해 (b) 독창적인 연구수행에 적절하다고 믿는가?

(a) 독서와 연구의 이해에서 310명(51.6%)이 “예”로 222명(36.9%)이 “아니오”로 69명(11.5%)이 “(LIS 석사학위가 없어)부적절한” 것으로 표시했다. 반대로 (b) 독창적인 연구수행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348명, 58.6%) “아니오”이고 68명이 “부적절한” 것으로 표시했고, 단지 178명(30%)이 “예”라고 대답했다. 전체적으로 절반 조금 이상이 LIS 석사프로그램이 독서와 연구의 이해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믿고, 1/3보다 적은 숫자들이 독창적인 연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16번 질문: 연구방법과 관련된 어떠한 교육적인 행위(참여 등)가 있나?

응답자들에게 7가지 대답의 영역 중 해당되는 모든 것에 표시하게 했고, “other” 그룹은 덧붙일 말이 있느냐의 항목이었다. 먼저 4개의 그룹은 공식적인 학위코스에 위탁한 경우이고, 그 다음 3개의 그룹은 비공식적인 교육방법의 코스에 위탁한 경우이다. 협회 회원들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3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ASIST 회원들은 다른 세 협회의 회원들보다도 비정규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코스에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MLA회원들은 절반이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continuing-education program)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협회 회원들이 연구방법을 배우는데 있어서 자가학습(self-education) 방법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별도로 언급한 몇 개의 대표적인 내용을 그룹화 하면 직업과 관련된 경험, 공식적인 대학원 프로그램(박사과정), 공식적인 학부 프로그램(학사·석사 과정), 석사 논문을 위해 유도된 연구, 금융기관과 도서관 사용자 조사를 위한 연구, 공동연구 또는 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연구기반 논문읽기에 관련된 요소

- 17번 질문: “연구기반 논문의 규칙적인 읽기”와 직업 환경, LIS 석사학위 준비(교과과정), 교육활동 참가 빈도 등의 항목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나?

“개인 직업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문헌 읽기”와 “정규적인 연구기반 논문 읽기”와의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직업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문헌을 읽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연구기반 논문”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었다.

또한 “연구문헌을 읽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갖는 것”과 “정규적인 연구기반 논문 읽기” 사이에도 역시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논문을 읽기 위한 시간을 갖는 응답자의 상당부분이 정기적으로 연구기반 논문을 읽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연구기반 출판물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LIS 석사학위 준비(교과과정)”와 “정규적인 연구기반 논문 읽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활동 참가 빈도”와 “정규적인 연구기반 논문 읽기”와는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연구방법에 관한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연구기반 논문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구수행에 관련된 요소

- 18번 질문: 특정한(직장 내) 직위나 LIS 직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가?

“Never”라는 응답은 “No”로 표기되고 “Seldom”이나 “Occasionally”와 “Frequently”라는 응답은 “Yes”로 표기한 결과, 61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8명(30.7%)은 “No”라고 응답했고 424명(69.3%)은 “Yes”라고 응답했다. 분석은 “연구수행”과 “연구를 위한 자원과 준비를 나타내는 아래 5개의 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갖는 것”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직장에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내적, 외적지원”과 “연구수행”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어 예상했던 응답자의 비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적, 외적지원을 받는 경우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고, 내적지원이 외적지원보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수행”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LIS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의해 적절히 준비된 것에 관한 응답자의 신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응답자가 참여했던 연구방법에 관한 교육활동 참가 빈도”와 “그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M= 2.40)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M=1.49)보다 교육활동 참가 빈도의 평균치가 높았다.

(8) 보다 관련성 있거나 유용한 연구를 위한 제안

- 19번 질문: 정보전문직 실무를 위해 보다 관련성 있거나 유용한 연구를 위한 제안은?

154개 응답자들의 제안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범주의 제안내용을 그룹화 하여 핵심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를 실무환경에 적합하게 보다 실무 지향적이고 덜 이론적으로 해야 한다.
- 일반화되고 폭넓게 읽히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원 연구결과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와 요약된 내용과 함께 동향정보들을 제공하는 등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스타일의 글을 사용하고, 덜 형식적이고 논조를 덜 강요하여 보다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글과 같이 글을 쓰는 기법에 주의해야 한다.
-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의학 분야의 ‘evidence-based practice’을 채택하거나 경영학 분야의 DB기반 의사결정을 채택하여 LIS 연구의 품질을 제고해야만 한다.
- LIS나 연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석사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문헌정보학으로부터 떨어진 부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관련 활동이나 계속적인 교육 워크샵 또는 단기과정의 중점연구에 활동적 참여)이 필요하다.
- 지식관리와 경쟁정보와 같은 새로운 정보 영역에 참여, 지겹고 오래되고 좁은 정의의 연구로부터 벗어나며, 연구단체와 실무자 사이에 보다 많은 의사소통과 공동협력을 하는 등 LIS 분야 밖으로 나가거나 내외부인과 공동협력 함으로써 연구범위를 넓혀야 한다.
- 사서들이 연구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과 돈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문헌정보학 학회지와
실무자의 연구활동

- 1) 한국 3개 문헌정보학회지에 나타난 실무자의 연구활동

한국에서 발행되는 실무중심의 문헌정보학

표 5. 국내 주요 학회지별 실무 논문 비율

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실무/총 논문	비율	실무/총 논문	비율	실무/총 논문	비율
1996	0/25	0.0%	7/22	31.8%	2/37	5.4%
1997	4/42	9.5%	3/25	12.0%	2/34	5.9%
1998	10/50	20.0%	11/25	44.0%	2/33	6.1%
1999	6/35	17.1%	5/32	15.6%	5/33	15.2%
2000	5/38	13.2%	11/44	25.0%	7/53	13.2%
2001	7/47	14.9%	10/45	22.2%	15/63	23.8%
2002	13/59	22.0%	22/45	48.9%	12/63	19.1%
합계(평균)	45/296	15.2%	69/238	29.0%	45/316	14.2%

분야 저널로는 협회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문화'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한국의학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능을 하는 기관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보관리연구'와 '지식정보인프라',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문헌정보학 실무자의 연구활동에 관한 외국의 최신 연구결과와의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의 3개 주요 문헌정보학회지에 나타난 실무자의 연구활동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1996~2002년도 분 논문의 투고당시 저자주소나 소속기관을 교수나 학생과 구분하여 폭 넓은 의미에서 실무자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수를 직접 조사해 실무자에 의한 논문의 비율을 표 5로 나타낼 수 있다.

조사결과 최근 7년도 분 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실무자의 논문비율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총 296편 중 45편으로 15.2%이고, '한국정보관리학회지'는 총 238편 중 69편으로 29%이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총 316편 중 45편으로 14.2%이며, 3개 학회 전체로는 총 850편의 논문 중 실무자의 논문이 159편으로 평균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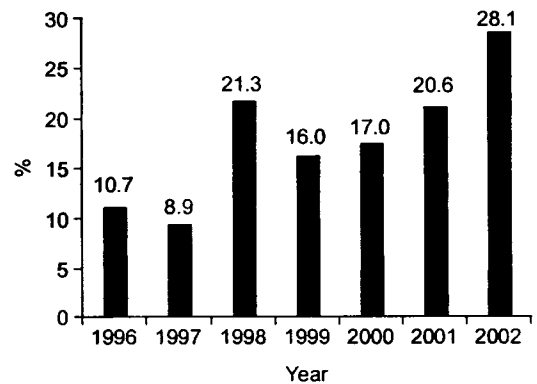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국내 주요 학회지의 실무 논문 비율.

(나머지 81.3%의 논문은 교수나 학생인 쓴 논문) 정도의 비중이었다. 학회별로 보면 정보학의 비중이 큰 '한국정보관리학회지'가 현장중심의 실무자 참여가 많아서인지 29%로 전통적인 도서관학 중심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두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개 학회 모두 최근에 실무자의 논문 투고 비중이 그림 1처럼 늘어나는 것은 실무중심의 연구활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현장중심 3개 저널에 자주 인용된 국내 외 저널

이지주(2002)의 연구에 나온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 등 3개 주요 현장중심의 학술지에 실린 문헌을 대상으로 한 인용분석 결과로 나타난 국내외저널의 순위를 본 저자가 취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조사결과를 보면 현장중심 3개 저널을 통해 6회 이상 인용된 국내저널은 총 332회가 인용되었고, 그 비중은 6회 이상 인용된 국외저널의 총 인용수 170회 보다 두 배가 넘는다. 또한 국내저널별 순위는 문헌정보학 분야 3개 주요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11회로 1위이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53건으로 2위이며, ‘한국정보관리학회지’가 37건으로 6위이며, 3~5위로는 분석대상 저널인 ‘도서관문화’, ‘도서관’, ‘국회도서관보’가 차례대로 인용빈도가

높은 저널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중심 3개 저널을 통해 6회 이상 인용된 국외저널은 총 170회가 인용되었고, 순위는 CRL, JASIS, Lib Trends, Lib J, LRTS가 차례대로 1-5위를 차지하였다. 이 중 Lib Trends와 Lib J을 제외한 3종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며, Lib J은 조사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널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미국 및 캐나다의 실무자에게서도 많이 이용되는 저널이었다.

맺 는 글

Powell 등이 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IS 분야에서는 더 많은 양의 더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많은 LIS 실무자들은 연구에 깊게 참여하지 않는다. 실무자의 연구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1,444개 질문지를 4개 협회(ALA, SLA, MLA, ASIST) 회

표 6. 현장중심 저널에 인용된 국내저널의 순위

순위	96-00년 논문에 인용된 저널명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	합 계	비 율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도서관학)	44	37	30	111	33.4%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도서관학논집)	26	7	20	53	16.0%
3	도서관문화	26	8	17	51	15.4%
4	도서관	28	12	9	49	14.8%
5	국회도서관보	23	5	13	41	12.3%
6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7		20	37	11.1%
7	도협월보	32	2	2	36	10.8%
8	정보관리연구	12		2	14	4.2%
9	서평문화	13			13	3.9%
10	계간 저작권			11	11	3.3%
11	디지털도서관		2	7	9	2.7%
12	한국비블리아	5	1		6	1.8%
	합 계	221	59	109	332	100.0%

표 7. 현장중심 저널에 인용된 국외저널의 순위

순위	96~00년 인용된 저널명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	합 계	비 율
1	CRL	12	12	13	37	21.8%
2	JASIS	16	1	16	33	19.4%
3	Lib Trends	6	19	7	32	18.8%
4	Lib J	6	12	10	28	16.5%
5	LRTS	3	4	9	16	9.4%
6	Info Process & Manag	5		8	13	7.6%
7	American Lib	6		5	11	6.5%
8	Lib Quart	3	6	2	11	6.5%
9	J of Acad Librarian	4	3	3	10	5.9%
10	RQ	2		8	10	5.9%
11	Sci Lib Media Quart	10			10	5.9%
12	J Lib Admin	5		3	8	4.7%
13	Online	3		5	8	4.7%
14	CCQ	3		4	7	4.1%
15	Communicat ACM	2	1	4	7	4.1%
16	Lib Info Sci Res	6	1		7	4.1%
17	Database			7	7	4.1%
18	Lib Acq Pract & Theory	6			6	3.5%
합 계		98	48	68	170	100.0%

원에게 보내 회수된 615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LIS 실무자의 거의 90%는 정기적으로 최소 1종의 연구저널을 읽고, 대략 62%는 정기적으로 연구기반의 논문을 읽고, 대략 50%는 가끔 전문적(직업적) 실무에 연구결과를 적용하며, 그리고 42%는 때때로 또는 자주 그들의 직업이나 LIS 전문직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Powell 등이 쓴 논문을 전체적으로 평하면 4개 협회 회원(실무자)들의 정보이용 및 연구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지만, ASIST는 3개 협회와 달리 학회로 판단되고 ALA는 SLA와 MLA 같은 전

문분야 단체를 망라한 도서관 일반분야 단체여서 조사대상 4개 단체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동일한 선상에서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렇지만 Powell 등이 쓴 논문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LIS 전문가들의 연구활동과 태도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한국 문헌정보학 실무계의 현실과 비교하면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이다.

Powell 등이 쓴 논문에 나타난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도서관 실무자인 MLA 회원들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구결과를 발표한 비중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시간상의 지원이 높은 편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연구방법

의 습득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지적했고, 직업(무)에 관련된 연구문헌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비율은 60.8%로 저널의 연구기반 논문을 읽는 비율은 67.7%로 1위이고, 연구문헌 읽기가 직업상의 일부 업무로 인식되는 비중이 67.4%로 연구지향의 저널을 정기적으로 읽는 비중은 평균 2.75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즉, 미국의 의학도서관협의회라 할 수 있는 MLA 회원들은 전반적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논문에 대한 취급이 다른 협회보다 높은 편으로 업무에 관련된 저널이나 논문을 읽고 직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협회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일상 업무로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문헌정보학회지 3종에 최근 7년간 실린 논문 중 실무자의 논문비율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총 296편 중 45편으로 15.2%이고, ‘한국정보관리학회지’는 총 238편 중 69편으로 29%이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총 316편 중 45편으로 14.2%이며, 3개 학회 전체로는 총 850편의 논문 중 실무자의 논문이 159편으로 평균 18.7% 정도의 비중이며, 3개학회 모두 최근에 실무자의 논문투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현장중심 3개 저널을 통해 6회 이상 인용된 저널은 국내저널이 총 332회이고 국외저널이 총 170회로 나타났다. 국내 현장중심 3개 저널에 많이 인용되는 국내저널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도서관문화’,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한국정보관리학회지’

등이고, 국외저널은 *CRL*, *JASIS*, *Lib Trends*, *Lib J*, *LRTS* 등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LIS 분야 실무자들은 연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논문을 읽고 행동에 옮겨서 연구를 수행하는 범위는 혼재되어 있고, 연구의 수준은 회원정도나 협회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MLA와 ASIST의 회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가 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도서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관 업무처리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려면, LIS의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 및 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관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이번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의학도서관계의 연구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실무자에 대한 근무여건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과 인사고과 등의 제도적인 연구활동의 독려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이치주.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2002; 19(3): 145- 160.
2. Powell RR, Baker LM, Mika JJ.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actitioners and research”, *Lib & Inform Sci Res*, 2002; 24(1): 49-72.